

신년사

정축년을 생약인의 해로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심정은 뿌듯함보다 늘 아쉬움이 더 합니다. 본 협회에서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는 소비자들의 호응으로 갈수록 그 열기를 더해가고 이같은 성원은 생약재배를 하는 농민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높아가는, 일반소비자들의 신토불이 인식과는 달리 국산생약재의 소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이와 반비례해 엑스제·식품원료로의 약재 수입은 더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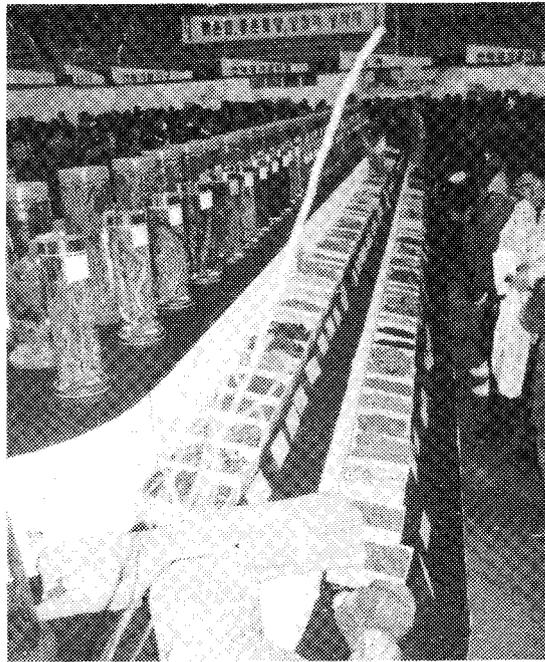
수입개방화시대에 우리약재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과 고품질 청정약재 생산을 통해 국산한약재의 국가경쟁력을 높여려는 생산농민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국산약재의 실수요자인 제약회사나 식품회사, 한의원, 한약방 등에서 우리약재 애용하기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내생약농업이 뿌리 내릴수 있도록 새해에는 주산단지의 효율적운영을 통한 계획생산·일괄수매방안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도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97년 올 한해도 우리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많습니다. 양질의 청정약재 생산은 물론이고 우리생약 살리기 운동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벌여 나가야 합니다.

국산생약재의 보존과 그 우수성에 대한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홍보차원에서 국산한약재 상설전시관 건립은 필연적인 것이며 전시관 건립을 위한 준비작업도 올 한해 빼놓을 수 없는 주요사업중 하나입니다. 우수종자, 종근개발사업도 꾸준히 진행돼야 할 시급할 과제이고, 농가소득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약가공 식품 개발에도 계속 힘 써야 합니다.

정축년 새해가 국내생약농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한 우리 생약살리기를 위해 한결음씩 그러나 결코 지치지 않는 소결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회장 이종용>



◇생약협회는 구랍 5일부터 11일까지 KBS 88 체육관에서 제3회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를 개최했다.

제3회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

신토불이 한약재 한마당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약재 3백60여종의 한 자리에서 전시됐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구랍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강서구 화곡동 소재 KBS 88 체육관에서 제3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를 개최했다.

활기, 당귀, 작약 등 흔한 보양재를 비롯 배본령, 과학, 자연산 영지 등 희귀약재까지 다양하게 전시된 이번 전시회는 첫날 개최식 행사를 시작으로

둘째날인 6일부터 본격적인 한약재 전시회가 이루어졌다. 강릉대 전 농림부장관 을 비롯 관계인사, 2천여명의 전국 생약재배 농민, 소비자 회원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품평회를 거쳐 우수약재출품

자로 선정된 재배농민 16명에 대해 농림부장관 상과 협회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모아진 곳은 국산과 수입산물 비교해 높은 비교전시관과 한의사 무료 건강상담코너. 3백60여종의 한약재가 시물표본으로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으며 한의사 건강상담실은 행사 첫날부터 열렬한 환영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3.4.5면>

대한약도협회 <3면에 계속>

전시회 유익한 행사

1천명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에서 우리생약살리기 차원에서 매우 유익하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도 모색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를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산한약재 상설전시관 건립은 국산약재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많은 소

비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생약협회가 최근 제3회 전시회기간동안 1천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張玉煥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團 韓國生藥協會
社址 大田 東區 大田洞 1140-55(大山빌딩 3층)
電話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 이모저모 3면
- ◎소비자 설문조사 내용 3면
- ◎사진으로 보는 제3회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 4.5면

국내산 지향 전량 수매 계획
생근으로 kg당 6백60원 제의

약협회측에 통고해왔다. 그러나 지향수확이 마무리된 지 이미 두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생지향 보관농가가 드물뿐 아니라 건조환료 또는 건조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지향 수매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국내 견지향 총 협회는 국내 견지향 총 생산량을 파악, 집계되는 대로 약도협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산해 96년 내 지향 수매 전량 6백60원 제의
산해 96년 내 지향 수매 전량 6백60원 제의
산해 96년 내 지향 수매 전량 6백60원 제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 그리고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한국생약협회는 고품질 청정약재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회원일동